

우승 확정 KIA, 기록·경쟁은 끝나지 않았다

28일까지 7경기 남아...이범호 감독 "윤도현 등 테스트" 김도영 40-40·양현종 170이닝·박찬호 골든글러브 도전



KIA 타이거즈가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지만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KIA는 지난 17일 우승삼패인 인터트리면서 한국시리즈 직행 티켓을 얻어냈다. 정규시즌 우승이라는 1차 목표를 넘어 또 다른 무대를 준비하게 된 KIA, 남은 시즌에도 도전은 계속된다.

'우승팀' 타이틀을 얻은 KIA는 1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 포함 7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KIA는 잠실 원정에 이어 21일 NC, 23·24일 삼성과 챔피언스필드에서 홈경기를 치른다. 그리고 25일 롯데를 상대로 올 시즌 홈 최종전을 치른다.

이어 27일 대전을 찾아 한화와의 시즌 마지막 대결을 갖고, 28일 사직 구장에서 진행되는 롯데와의 원정경기를 통해 올 시즌 144경기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압도적인 질주로 우승을 확정지은 KIA는 '88승'을 올려보고 있다.

KIA는 2017년 우승 당시 87승56패1무(승률 0.608)의 성적표를 작성하면서 2위 두산에 2경기차 앞선 1위를 기록했다. 이때 기록된 87승은 구단이 기록한 한 시즌 최다승이다.

137경기째 우승을 확정지은 KIA는 18일 현재 83승 2무 52패(승률 0.615)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팀의 베테랑으로 우승을 이뤘던 이범호 감독은 이번에는 사령탑으로 기록 경신을 노린다.

우승이 확정된 만큼 선수들의 부상 관리를 위해 베스트 멤버가 가동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직 '기록'을 남겨둔 주전 선수들이 있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선수들의 '경쟁'도 있는 만큼 KIA는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줄 전망이다.

일단 타석에서는 김도영에게 눈길이 쏠린다.

올 시즌 KBO리그 사상 첫 '월간 10-10'을 시작으로 최소타석 내추럴 사이클링히트, 최연소·최소 경기 '30-30' 등을 이룬 김도영의 기록행진은 진행형이다.

김도영은 지난 17일 KT원정에서 연달아 담장을 넘기면서 37홈런을 기록하고 있다. 도루는 39개를 성공시켜 놓은 만큼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의 '40-40'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선다.

양현종도 10년 연속 170이닝에 3.2이닝만 남겨두고 있는 만큼 한 차례 더 마운드에 올라 기록의 순간을 준비한다.

'내야의 사령관'으로 맹활약을 박찬호도 생애 첫 골든글러브 도전을 위해 막판 스피트를 펼치게 된다.

우승 확정 이후 경쟁의 순간을 기다렸던 선수들도 있다.

올 시즌 KIA는 신구조와 속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욱 탄탄해진 선수층을 자랑하고 있다. 올 시즌 '슈퍼 백업'으로 활약했던 선수들에 이어 퓨처리그에서 기회를 엿보던 이들도 남은 경기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척추 피로 골절로 재활을 해왔던 좌완 윤영철과 역시 있던 부상으로 올 시즌 아직 1군 무대를 밟지 못한 윤도현에 시선이 쏠린다.

윤영철은 지난 17일 롯데와의 퓨처리그 경기를 통해 3이닝을 던지면서 위밍업을 끝냈다. 윤도현도 부상에서 회복해 퓨처리그에서 22경기를 소화하는 등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범호 감독은 "박찬호는 골든글러브가 목표니까 경기를 나가려고 할 것이다. 김도영과 양현종도 기록이 남아있다"며 "또 다른 선발 투수로 윤영철이 던지는 것도 봐야 한다. 일단 두산전까지 치른 뒤 광주에서 윤도현을 올려서 스타팅으로 내보낼 생각이야. 젊은 선수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면서 남은 시즌을 치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범호 감독은 "박찬호는 골든글러브가 목표니까 경기를 나가려고 할 것이다. 김도영과 양현종도 기록이 남아있다"며 "또 다른 선발 투수로 윤영철이 던지는 것도 봐야 한다. 일단 두산전까지 치른 뒤 광주에서 윤도현을 올려서 스타팅으로 내보낼 생각이야. 젊은 선수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면서 남은 시즌을 치를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도영



양현종



박찬호

“OOO 활약에 나도 놀랐다”

이범호 KIA 감독 눈길 끈 선수들

KIA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은 사령탑 첫 해 '우승 감독'에 자리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범호 감독은 선수들을 보면서 놀랐다.

선수 시절 주장으로 선수단을 이끌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는 퓨처스 총괄 코치, 타격 코치 등을 하면서 누구보다 선수들과 팀을 잘 알고 있다.

잘 아는 선수들과 만든 우승이지만 이범호 감독은 미처 몰랐던 선수들의 모습을 보기도 했다.

승리에 대한 간절함과 책임감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 선수들에게 우승의 공을 돌린 이범호 감독은 "홍중표와 한준수 그리고 솔직히 박찬호를 보면서 놀랐다"고 웃었다.

홍중표는 올 시즌 내야의 부상이 겹치면서 기회를 얻었다.

시즌 첫 경기였던 4월 11일 멀티히트를 기록한 홍중표는 이후 재치 있는 수비로 '임시직'이 아닌 '정규 백업' 선수로 한 단계 올라섰다.

한준수는 김태균과 안방을 번갈아 지키면서 공수에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다. 타격에서 기대를 많이 받았던 한준수는 1군 경험을 쌓으면서 수비에서도 많은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시즌 막판 척골 분쇄 골절 부상을 당했던 박찬호는 우려를 털어내고 2년 연속 3할을 기록하면서 '계산이 되는 선수'가 됐다.

획일화 대신 성향 따라 기용

박찬호 믿음직한 '3할 타자'

홍중표 '정규 백업'으로 정착

한준수 야간 경기서 '맹활약'

이범호 감독이 뽑은 세 선수는 개성과 성향이 뚜렷한 선수들이다. 이범호 감독은 있는 그대로의 장점에 주목해 역할을 맡겼고, 이들은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범호 감독은 "중표 같은 경우 발이 그렇게 빠르지 않고, 텀벙벀벙 실수도 잦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겹겹이 들었다고 할 수 있다. 찬호처럼 이상한 자세에서 공을 던지는 경우도 많다. 퓨처스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향이기도 하지만 저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내야수가 멋있는 자세로 공을 던지고, 수비를 한다는 것은 능력치가 있다는 것이다. 능력이 부족한 선수들은 오히려 그런 걸 잘 못한다. 찬호나 중표 같은 선수들은 클러브 투수도 하고 러닝스로우도 한다. 그런 친구들이 정확해지면 주전이 될 수 있고, 더 좋아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어떤 분들은 정확한 것이 더 좋다고 하는데, 어릴 때 너무 정확한 것만 생각하면 실력이 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찬호, 중표 같이 할 수 있는 선수들에게 정면으로 오는 것을 정확하

게 하라고 하니 수비 범위도 넓어지고, 정확도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획일화된 모습을 강요하는 게 아닌, 가지고 있는 성향에서 정확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한 이범호 감독의 또 다른 육성 비결은 '자신감'이다.

이범호 감독은 "예전에 보면 찬호가 이상한 자세로 타격을 했었다. 지금도 점프에서 치는 것도 많지만(웃음). 왜 그렇게 치냐고 물었을 때 '0.250을 치고 싶다'고 했다. 4번에 한 번만 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해 비슷하게 쳤다. 그다음에는 0.270을 이야기했었는데, 그해 0.272를 쳤다. 1군 타격 코치로 올라와서 0.300을 이야기했다. 찬호가 '3할을 어떻게 치냐?'고 했는데, 조금씩 단계를 밟으니까 0.230의 타자가 3년 만에 0.300이 됐다.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쉽게 느껴지게 하니까 그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했다.

또 "한준수도 마찬가지다. 아침형은 오전에 집중하고 야간에 실력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올빼미형 선수는 낮경기에 집중을 잘 못한다. 한준수는 아침잠이 많은 유형인데 지난해 트리 확대되고 한준수가 1군에 올라온 것을 보니 잠을 꼭 자고 나오니까 경기력이 좋았다"며 "그걸 보면서 2군에서의 성적이 자기 실력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1군에 두면 어떻게 하는 생각으로 개막 엔트리에 넣었다. 성향은 잘 안 바뀐다. 확실히 그런 부분 신경 쓰니까 능력이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또 "어떤 분들은 정확한 것이 더 좋다고 하는데, 어릴 때 너무 정확한 것만 생각하면 실력이 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찬호, 중표 같이 할 수 있는 선수들에게 정면으로 오는 것을 정확하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배구연맹은 팬을 위한 이벤트 마련과 규칙 재정비를 통해 2024 통영·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의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사진은 컵대회 경기장 내부에 마련된 다채로운 체험존. <KOVO 제공>

가을 배구축제, 더 재밌어진다

2024 통영·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21일 통영서 개막

'유니폼 꾸미기' 존·3D 포토존·셀피 부스 등 체험존 운영



통영에서 펼쳐지는 가을 배구축제가 21일 막을 올린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팬을 위한 이벤트 마련과 규칙 재정비를 통해 '2024 통영·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의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이번 컵대회 남자부 경기는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여자부 경기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치러진다.

KOVO는 단순한 스포츠 관람이 아닌 관람객이 배구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대회기간 체험존을 운영한다.

KOVO는 경기장 내부에 종이 소재 구조물로 제작된 '친환경 팝업존'을 설치해 남녀부 14개 구단의 유니폼이 전시된 코보마켓과 '유구(유니폼 꾸미기)' 존, 3D 포토존, 셀피 부스 등을 마련했다.

'유구존'에서는 와편을 활용해 나만의 유니폼과 에코백을 만들고, 3D 포토존과 셀피 부스에서는 3D 형태의 배구공과 네트 등 추억이 담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부스 내 럭키 드로우 기계에서 뽑은 카드의 선수

가 당일 경기 MVP로 선정되면 경기 종료 후 선수와 사진촬영을 하고 사인을 받을 수 있는 '특급 이벤트' 또한 준비돼 있다.

KOVO는 컵대회 기간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직관을 인증한 관중을 대상으로 매일 다른 스탬프가 적힌 목걸이형 포토카드 홀더를 제공하는 '스탬프 챌린지'를 진행한다.

관중은 스탬프 2회 누적 시 리유저블백, 4회 누적 시 컵대회 키링, 6회 누적 시 컵대회 비치타올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빈백에 앉아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프리미엄석을 예매하면 컵대회 기념 MD가 제공된다.

리시브를 체험하고 크로스넷을 활용한 배구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한편 이번 컵대회에는 국내 프로배구의 선진화를 위해 새롭게 개정된 규칙들이 시범 도입된다.

KOVO는 세트 당 1회 가능했던 비디오 판독을 세트 당 2회로 늘리고 국제배구연맹(FIVB) 규칙에 따라 릴리 중간 심판 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반칙에 대해 즉시 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칙을 변경했다.

또 KOVO는 비디오 판독 요청 시 주심의 판독 시그널 전 먼저 인정하고 손드는 선수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해 불필요한 비디오 판독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관중 1천만' 프로야구 입장 수입 1500억 돌파

KIA, 44% 급등

프로 스포츠 최초로 시즌 누적 관중 1천만명 시대를 개척한 2024 프로야구가 입장 수입에서도 새 이정표를 세웠다.

이미 6개 구단이 시즌 총관중 신기록을 수립하고, 또 6개 구단이 관중 100만명을 넘긴 상황에서 입장 수입도 크게 늘었다.

정규리그 전체 경기(720경기)의 95%를 치른 18일 현재 10개 구단 입장 수입은 1505억6493만 5895원을 찍어 1982년 프로 출범 후 최초로 1500억원을 돌파했다.

KBO리그는 2023년에 처음으로 입장 수입 1000억원을 넘겨 1233억3309만7171원을 벌였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관중이 34%나 증가한 덕에 올해 입장 수입은 시즌 종착역에 달기 전에

1500억원 고지를 처음으로 밟았다.

2024년 입장 수입은 1982년 약 21억원의 71.4배에 달한다. KBO리그는 1991년 입장 수입 100억원 시대를 열었고 1995년 200억원을 넘겼다.

이후 침체로 고전하다가 2009년 300억원, 2010년 400억원, 2011년 500억원, 2012년 600억원을 차례로 경신했다.

10개 구단 체제가 확립된 2015년에 700억원 이상을 벌여 KBO리그는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2016년 800억원, 2018년 9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경기 수와 비교할 때 관중은 34%, 입장 수입은 30% 각각 증가했다. 평일과 주말 입장권 가격을 차별화하는 등 각 구단의 객단가 정책에 따라 관중과 입장 수입 증가치는 약간 다르다.

올해 10개 구단 중 최다인 44번이나 매진을 이룬 한화의 입장 수입은 작년보다 47% 급증했다.

정규리그 우승팀 KIA의 관중은 지난해보다 68%, 입장 수입은 44% 급등했다.

KIA를 필두로 삼성 라이온즈, KT 위즈, SSG 랜더스, 한화, 키움 히어로즈 6개 구단이 시즌 누적관중 신기록을 작성했다. KIA와 삼성은 각각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2014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2016년) 개장 이래 최다 인원을 끌어모았다.

SSG는 역대 인천 연고 프로야구팀으로는 최초로 2년 연속 관중 100만명을 기록했으며 역대 최다 홈관중 기록도 12년 만에 새로 썼다.

LG 트윈스도 11년 만에 관중 신기록 수립과 잠실구장 최초로 관중 130만명 달성을 눈앞에 뒀다.

올해 프로야구는 역사적인 시즌 200번째 매진에도 1경기를 남겼다.

/연합뉴스